

경주문화엑스포 학술회의 '새 천년의 미소...'

"길은 동쪽에 있다"

21세기 불교연 세미나 '불교의 나아갈 방향'

21세기불교연합회(회장 법조스님)는 5일 서울 하림각에서 '21세기 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제1발표 '21세기의 불교와 복지'에서 지하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은 "오늘날 사회복지제도가 갖는 한계를 통해 '사회복지'라는 이상향 달성이 물질적 투입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신적 가치가 지니는 중요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해 온 불교의 복지사상과 실천방법은 이러한 점에서 현대사회복지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자산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발표 '21세기 불교와 동양철학'에서 송석구 총장(동국대)은 "인류 문명사의 방향은 자타불이(自他不二)나 천지동근(天地同根)의 원리에 바탕을 둔 불교나 동양 사상이 가르치는 열린 지평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 사상은 21세기 인류문명에 열린 세계관, 다원적 가치관 등을 제시함으로써 '길은 동쪽에 있다'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역불교 연구 폭넓게 진행돼야" 정병조교수

"원효스님 화쟁사상 새시대의 빛" 박성배교수

"민족원형 시대별 문화수용 발전" 김용운교수

"보존의 연장선상에서 개발 검토" 한경구교수

전통을 재창조의 발판으로, 21세기 인류문화의 방향을 진단해 본 '98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국제 학술회의가 '새 천년의 미소·용화·창조'를 주제로 5~7일 경주 일원호텔에서 열렸다.

국내 35명, 국외 16명 등 세계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제1분과 경주문화의 지역성과 세계성, 제2분과 문화의 진흥과 환경보전, 제3분과 문화의 민남과 용화, 제4분과 정보화 사회와 문화적 대응 등 분과별 주제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문화의 새 천년'을 여는 인류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비단길과 한국불교'로 발표에 나선 정병조 교수(동국대 부총장·국민윤리)는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과 한국의 불교전래, 또 많은 스님들의 구법활동은 불교 자체의 사상적인 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정병조교수



◇박성배교수



◇김용운교수



◇한경구교수

마련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크로드와 한국불교의 관련 등을 제시하며 정교수는 "한국불교의 전래과정에 해로(海路)를 통한 남방 불교의 유입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서역불교에 관한 연구는 보다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문화의 거인, 원효'에서 박성배 교수(美 뉴욕주립대)는 "어느 종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두루 관용하는 보편성을 지닌 무애의 삶을 살았던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은 오늘날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작용, 무애와 자재의 불이(不二)의 논리로서 앞으로 새시대를 여는 빛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엄밀히 따져 보면 관용하는 보편성을 획득한 원효는 치열하게 얽매어 대한 노력을 경주, 화쟁사상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운 교수(한양대 명예교수)는 '한국원형과 이문화의 관계'에서 "한국의 문화를 깊이 관찰하면 한국원형의 일부에 잠재되어 있는 강한 한국적 사머니즘 그리고 명분주의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며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기본적 가치관, 사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원형(Archetype)"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를 규정하는 중심적 가치관은 시대의 특징적인 문화 양상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장했다. 박교수는 "엄밀히 따져 보면 관용하는 보편성을 획득한 원효는 치열하게 얽매어 대한 노력을 경주, 화쟁사상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운 교수(한양대 명예교수)는 '한국원형과 이문화의 관계'에서 "한국의 문화를 깊이 관찰하면 한국원형의 일부에 잠재되어 있는 강한 한국적 사머니즘 그리고 명분주의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며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기본적 가치관, 사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원형(Archetype)"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를 규정하는 중심적 가치관은 시대의 특징적인 문화 양상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

"불교의례는 自他不二 수행"

박선영 교수, 종교학회 세미나서 주장

"한국의 불교의례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친 영원성을 염두에 두고 모두가 함께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회향된다."

"종교와 의례"를 주제로 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 추계학술세미나에서 '한국 불교의례의 절차와 의미구조'로 발표를 맡은 박선영 교수(동국대 교육학과)는 불교의례의 절차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구조를 검토하고, 그것이 갖는 지향점을 고찰해 관심을 모았다.

박교수는 "불교의례는 '시방삼세(十方三世)'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무한한, 또 우주적이면서도 영겁(永劫)에 걸친 차원에서 행해지고 영원되며 발원되고 있다"며 "그 발원이자 영원은 모두가 함께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의례 가운데서도 특히 예불과 공양의례·천도례 등을 집중 고찰한 박교수는 "여기에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다 나와 무연(無緣)하지 않다는 관점이 널리 포용되고 있다"며 "의례를 통해 쌓인 자신의

공덕은 우주와 영원의 차원에서 모든 존재와 함께 공유(共有)되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예불의례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응시적(應時的)이고도 통시적(通時的)인 차원에서 유정(有情) 무정(無情)의 모든 존재를 자비의 대상인 동시에 깨달게 해야 할 존재로 보는 관점이 드러나 있다는 것. 또 공양의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불교의 정신적 의미구조와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으며, 천도례는 스스로의 깨달음과 중생의 제도를 동시에 열원하고 축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교수는 "불교의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의례가 불보살 등의 증명과 가피, 즉 가호 속에서 시작되며, 모든 발원이나 축원은 항상 시방삼세의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서원(誓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수행이자 공덕행(功德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고양이 달마**  
by David & Ted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 (<http://www.dharmaha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IT'S OK FOR YOU TO PLAY ALL THE TIME, YOU'RE JUST AN ANIMAL.

THE HUMAN IS OBLIGED TO MAKE CONTINUAL SPIRITUAL PROGRESS.

NOW... GO PLAY, I'M STUDYING HOW TO LIVE ABSOLUTELY IN THE MOMENT.

그레, 하루종일 놀아도 괜찮아. 너는 짐승이니까.

인간은 정신의 발전을 꾸준히 추구해야만 해.

그래서 너는 놀러도 나는 공부해. 해. 어떻게 하면은 전혀 살아갈 수 있을까 (고양이 달마의 말 '갈수록 태산이군')

해설 장님은 아리따운 장식물을 얻어도 기쁨을 못 느낀다.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극히 깊은 가르침을 만난다 해도 그 어리석음이 매우 심한 까닭에, 그것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할 진리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배울 생각을 못할 수 밖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문서 참고

**인터넷은 전자문서 백과사전**  
불자 네티즌배려 자료목록 제공

인터넷은 거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불자 네티즌이 영문 불교 사이트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불자네티즌이 'pema' 등과 같은 낯설은 단어와 만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터넷의 잠재력은 이 순간 더욱 빛난다. 인포식이나 야후와 같은 검색엔진에 'pema'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면,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이 담긴 팔리어로, 영문용역됐다 것을 알게 된다. 3만여개로 추정되는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pema'라는 단어가 사용된 데이터가 없을 수 없으며, 그 자료 중에서 'pem'의 뜻을 설명해 놓은 문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백과사전'이라는 공식은 여기에 근거한다.

불교 사이트 중에서는 현란한 그래픽 보다는 불교학 연구 성과를, 고승 어록, 경론을 입력자료로, 각종 불교사 개관 등의 데이터를 분류해 놓고 불자 네티즌이 언제든지 다운로드(가져오기) 서비스를 이용,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한 '파일 라이브러리(File Library)' 사이트가 있다. 말 그대로 '전자 문서 도서관'이다.

△부다넷 파일 라이브러리 (<http://www.buddhanet.net/filelib.html>)는 불교미술, 불교일반, 상좌부불교, 대승불교, 명상, 선불교 등의 분류에 따라 총 2백 40여종의 문서와 50여종의 사진자료를 제공한다. 각 서비스의 자료 목록은 리스트 파일을 이용하면 된다. 이 파일에는 '파일 이름' '자료 분류' '자료 내용' 등이 정리되어 있어, 특정한 자료를 찾고 있는 불자 네티즌의 수고를 덜어준다.

△고화질의 그래픽을 제공하는 '불교미술' 서비스에서는 시공을 초월해 부처님의 모습을 열람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단연 백미. 이곳에서 제공하는 부처님 이미지는 고대 인도와 스키타이족의 부처님 모습도 있다.

불교일반·상좌부불교 등의 서비스에서는 아산 슈머르도스님의 '사상제', 아찬차스님의 '자유와 법', 에리자베스 에일리의 '고(古)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필 브라운의 '불교와 생애 위기' 탐마비하리스님의 '가산, 기근, 지개발' 등의 문서가 제공된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문서 파일은 'ZIP' 형태로 압축되어 있다.

△불교와 동양철학 (<http://httpsvr.ocs.dreexel.edu/>)에서는 영국의 불교계 지도자 상가라시타(서방불교도교우회장)의 글 '불교와 부처' '수행관' '불교와 죽음' '불교의 세계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 빅터 맨스필드교수(폴게이트대학)의 '대승불교와 현대 물리학의 시간관' '선불교와 티벳 불교' 등 20여종의 문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상좌부불교 문서창고 (<http://world.std.com/~metta/index-title.html>)는 남부계 고승들의 어록 뿐만 아니라 아함경의 일종이 팔리어 5부류의 영문본 (니카야), 상좌부불교의 교리와 경전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니카야)는 불설에 가장 가까운 경전으로 꼽힌다. 이곳에서 문서 파일들은 '불교출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에서 전자출판된 것으로, 모든 내용들은 포교를 위해 공개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fia.com)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 광고입니다

## 지선스님이 구상하는 29대 총무원의 종단운영 기조

- 종단대행과 공의제도 실현**  
종단의 안정과 중흥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종단의 대화합을 통하여 원력을 총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주요 종책사업과 종단중흥불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로대덕스님들과 종진스님들을 비롯한 종도들의 지혜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지선스님은 21세기 불교중흥의 대전제인 종단 대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용살림체제를 구축하여 공의제도에 바탕하는 화합종단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수행, 교육, 포교를 보좌하는 종무행정체제의 구축**  
행정을 위한 행정, 목적없이 세간의 시류에 따라 표류하는 행정은 조계종단의 종무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단이 선종을 중심으로 제종을 포섭한 범종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종무행정은 선불교 전통의 선양과 이에 기반한 수행, 교육, 포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포교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지선스님은 수행·교육·포교를 보좌하는 종무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미래사회 인류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모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 총무원장 4년 단임 구현을 통한 종단안정체제 확립**  
과거로부터 오늘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종단 혼란의 원인이 종권에 대한 개인적인 과욕에서 비롯된 바, 세대간·문종간 갈등을 치유하고 혼란이라는 단어에 마침표를 찍는 가장 적합한 계기는 책임있는 단임정신의 실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선스님은 4년 단임을 구현하여 종단의 안정을 정착시키고, 경륜있는 종단지도자들이 두루 종단의 종책을 맡을 기회를 줌으로써 화합적이고 총화적인 종단운영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 책임있는 동행추진과 봉사하는 종무행정의 실현**  
조계종의 종단운영은 중정예하와 원로회의,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중앙종회 등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중정예하와 원로회의가 종지중흥의 근간을 잡는 종단의 어른이라면, 총무원장은 종무집행자로서 말 그대로 '일 하는 자리'입니다.  
지선스님은 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독단적인 권위주의와 공명심을 버릴 줄 아는 겸허한 자세로 시종 임할 것이며, 소신있고 책임질 줄 아는 총무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 불교 고유한 특성에 맞는 사회적 활동**  
불교가 미래사회의 가치를 국가와 사회에 제공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종단의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하며 종단적 역할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종교 따라가기식이나 총무원장 개인의 공명심을 드높이는 사회 활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선스님은 조계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종단의 자산과 강점을 극대화하는 사회활동을 개발 전개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기호 2번 지선

- 1946년 1월 6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에서 출생
- 1961년 5월 1일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사에서 김석산(石山)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64년 3월 경상남도 법안사에서 통산 대종사를 계사로 보살계 수지
- 1967년 3월 법안사 선안 대종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72년 3월 서울 대종사를 법사로 전담
- 1976년 1월 조계종 종정 사서실장
- 10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주지
- 1978년 9월 조계종 비상종회의원
- 1980년 4월 조계종 제6대 중앙종회의원
- 1981년 11월 제3회 '세계승가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
- 1986년 6월 경부구현전국승가회 의장
- 1987년 ~ 92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연합 공동의장
- 1987년 5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의장
- 1992년 10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 1993년 7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공동의장
- 1994년 3월 법승가종단개혁추진회(법종추) 상임지도위원
- 5월 조계종 개혁회의 상임부위원장 및 개혁회의 의원
-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취임
- 1998년 민족통일추진회 위원, 교구본사주지모임 회장
- 대한민국 제22국주추진위원회 상임위원